

# 팬데믹 시대 속 그리스도인의 “동행(同行)” 의식\*

- 루터의 편지를 중심으로

이영호 (루터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종교개혁의 시대를 연 흑사병 팬데믹
- III.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루터의 조언
- IV.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동행 의식’
- V. 글을 마치며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4.08>

\* 이 논문은 『2022년 루터대학교 교내 학술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 ABSTRACT •

---

## Christianity's "Consciousness of Companionship" in the Pandemic Era

Associate Prof., Lee, Young Ho (Luther University)

Humanity has been constantly challenged by infectious diseases in history. Luther also lived in a pandemic era caused by the Black Death and suggested a solution to his life as a Christian. This article looked into Luther's 'consciousness of companionship' presented to Christians living in the Black Death Pandemic era.

Luther says that Christians should acknowledge the difference in their attitude toward the situation i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and focus on walking (working, living) together before discussing their choice in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Luther's view is based on his theology of the cross. According to him, Christians are called to suffer in a manner like Jesus Christ. Christians should regard hardship and suffering as treasures and embrace them as the most precious things. The sacrifice of Christians is, therefore, to take care of their neighbors by an intentional mindset of 'consciousness of companionship.' This humble care for one's neighbor, by bearing the cross of Christ, is a powerful force by Christians. The church after the Pandemic of Covid-19 should be a community that practices a 'consciousness of companionship.'

**Key words:** Pandemic, Luther, COVID-19, Consciousness of Companionship.

---

## I. 들어가는 말

2020년 이후,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도전을 받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최초 발견되고 짧은 시간에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COVID-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sup>1)</sup>했다. 팬데믹은 대량 살상 전염병이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말이다. 2020년 지구촌의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였고 이 후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한 백신 개발과 방역 활동이 3년여의 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는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 상황에 처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국가는 187개국으로 누적 확진자는 615,961,198명, 사망자는 6,593,198명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19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2022년 12월 현재 누적 확진자는 27,611,555명, 사망자는 30,975명<sup>2)</sup>이다. 백신이 보급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으로 위험도가 줄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강제 규정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전염병의 도전을 받아왔다. 전염병은 인류 스스로 만든 재앙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정착생활은 도시화로 인한 인구밀도를 높였고 좁은 생활 구역 속에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전염병이 생겨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질병 바이러스가 인간 질병

1) WHO는 1968년 홍콩 독감에 대해서 그리고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선언은 세 번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 위험도 경보 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분류하고 있다. 6등급은 최고 위험 단계이며 이때에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진다.

2) <http://ncov.mohw.go.kr>, 중앙안전대책본부, 2022년 12월 10일 접속.

바이러스로 돌연변이 되기 때문이다.<sup>3)</sup> 인류는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다. 그중에서 인류가 가장 손쉽게 선택한 조치 방법 중의 하나는 바이러스로부터 도망가기가 아닐까 한다.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를 피해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취해 온 바이러스에 대한 일반적인 방역이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사태를 방역과 백신으로 극복하고 있으나 변형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떤 형태로든 다시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방역에 성공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조차도 거리두기 방역정책들(사회적, 생활적 거리두기)을 통해 사람 간의 접촉을 삼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제 우리의 시대는 ‘거리두기’가 새로운 일상이 되는 ‘뉴 노멀’(New Nomal)<sup>4)</sup>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다시 도망가기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2020년, 갑작스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미국 Christian Today 온라인 판에 올라온 짧은 글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What Martin Luther Teaches Us About

3) 고대로부터 인간의 가축 행위는 여러 전염병을 만들어 냈다, 소는 결핵과 천연두 같은 여러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전했다. 돼지와 오리는 독감, 홍역은 개와 소가 걸리는 우역이 돌연변이 되어 인간에게 전염된 것이다. 또, 가축의 배설물로 오염된 물은 소아마비, 콜레라, 장티푸스, 백일해, 디프테리아 등을 발생시켰다. 회충은 돼지 회충에서 진화한 것이다. 콜레라, 페스트, 조류독감, 메르스, 사스 같은 전염병은 병원체,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였다. 유현준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 포스트 코로나,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포스트코로나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움. KTV국민방송. 2020. 6.

4) 뉴 노멀(New Nomal)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일컫는 말이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4년 Roger McNamee의 『새로운 표준 : 고위험 시대의 거대한 기회(The New Nomal : Great Opportunities in a Time of Great Risk)』라는 저서에서 처음 제시하고 이후 2008년 무하마드 엘 에리언(Mohamed El-Erian)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When Makers Collide)』에서 IT 기술 발달이 초래한 금융혁신을 언급하면서 널리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전반적으로 저성장이 일상화된 상황을 ‘뉴노멀의 시대’로 정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 2016) 한동욱, “‘뉴 노멀’시대의 건축,” 『건축』 64-8 (2020), 20-21.

Coronavirus, Is it faithful to flee an epidemic?”<sup>5)</sup>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듀크 신학교의 신학, 의학, 문화 연구원이자 마운트 시나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에미 양”이라는 학생 쓴 것이었다. 그는 1527년 초겨울 흑사병이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한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썼던 글<sup>6)</sup>을 인용하면서 비텐베르크에 닥친 흑사병 상황 속에서 루터가 가졌던 생각과 삶의 방법을 전하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팬데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적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글은 2020년 한 해 동안 인터넷에서 인기 있었던 글, 3위에 올랐다.<sup>7)</sup> 이 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팬데믹 시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500여 년 전, 흑사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았던 루터의 조언은 코로나-19로 팬데믹을 맞이한 현대인들에게 귀한 참고자료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유럽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던 흑사병은 1347년부터 1350년 사이에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전염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25%가 사망했다. 이후 15세기에도 발병하면서 많은 유럽인에게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와 공포를 남겼다. 이 전염병의

5) <https://url.kr/s4abk7>, “What Martin Luther Teaches Us About Coronavirus, Is it faithful to flee an epidemic?” EMMY YANG (2020.01.30.) 2022년 12월 10일 접속.

6)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글은 1527년에 쓰여진 편지 형식의 글로, 루터가 살던 비텐베르크에 중세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이 다시 찾아왔던 당시의 기록이다.

Luther’s Works, Volume 43,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edit, Jaroslav Pelikan과 Helmut T. Lehma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5~1972), 1968. (이하 LW로 인용 표기)

7) 이지성, “루터의 시선으로 본 코로나-19”, 편집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과 새로운 교회-NCCK 애크뮤니칼 선교포럼 자료집』, (2021, 4). 6.

사망률은 30%에서 90% 사이였다. 앞에서 언급한 루터의 글은 이때 쓰여졌다. 1527년 비텐베르크에 다시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였다. 흑사병이 유럽 대륙을 덮친 후 200년 정도가 흐른 후였지만, 잠시 멈춘 듯했던 전염병은 다시 비텐베르크를 휩쓸었다. 급작스럽긴 했지만 뜬금없는 일은 아니었다. 이 시기 유럽인들은 흑사병이 잠잠한 동안에도 사람들은 늘 불안해야 하였다. 그 불안은 그들의 삶 속에 상주하던 갑작스러운 죽음과 질병의 그림자 때문이었다. 이질, 말라리아, 장티푸스 및 인플루엔자 같은 많은 바이러스가 유럽 전역에 만연했다. 이 당시 유럽인의 절반이 3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에 일반적이고 유일한 대처 방법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은 곳으로 피신하는 것<sup>8)</sup> 뿐이었다는 것이다.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법이 없었기에 당연히 취해야 할 이 행동이 당시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었다. 당시 교회들은 전염병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sup>9)</sup> 교인들을 부추겼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 때문에 개신교회의 목사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였고 시급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다.<sup>10)</sup> 그들의 질문은 “기독교인이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것이었고 이 질문은 당시에 브레슬로우 교회 만의 질문이 아닌 전 유럽 사회가 안고 있

8) 이 글과 루터의 편지에서 언급되는 ‘도망’이라는 단어는 이런 상황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9) 이지성, “루터의 시선으로 본 코로나-19”, 8.

10) 1527년 7월 6일 마르틴 루터는 지병이었던 뇌빈혈로 인해 쓰러진 바 있다. 루터는 이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렸고, 따라서 편지의 첫 부분의 분위기는 상당히 가라앉아 있다. Kittelson, James M., *Luther : The Reformer*, 김승철 역, 『개혁자 말틴루터』 (서울: 컨콜디아사, 1995), 253-254.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셔서 한동안 편지를 쓰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LW 43: 115.

는 보편적이고 시급한 것이었다. 루터는 이 문제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상황 앞에 서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소책자로 출판하여 공개하였다. 우리 시대에도 코로나-19로 인류가 바이러스 감염 문제를 심각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루터의 이 글을 중세의 특정한 상황 하에서 쓰여졌던 종교개혁자의 설교문 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루터가 맞닥뜨려야 했던 흑사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II. 종교개혁의 시대를 연 흑사병 팬데믹

팬데믹의 시작은 페스트 바이러스에 의한 중세의 ‘흑사병(black death)’ 사태이다. 당시 과학 수준에서는 위험 사회적 맥락에서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대해서 과학이나 정치, 교회가 대처를 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중세 사회 전체가 흔들려버렸다. 중세 봉건국가체제와 가톨릭교회 체제는 이 시대 공공성을 상실하면서 공동선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국가체제, 교회체제가 되어 있었다.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가톨릭교회의 권력은 흑사병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무능력하였다. 또한 당시의 교회는 중세 사회 속에서 신뢰할 만한 신앙적 목소리와 신학적 합리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런 현상들은 교회 공동체 내의 위기의식 급증으로 이어졌고 교회의 기본 전제들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해 모델로서의 돌파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sup>11)</sup> 이런 상황 속에서 르네상스 혹은 인문주의의 새로운 성경 해석학 등을 통해 종교

11) H. Küng and D. Tracy (Ed.), *Paradigm Change in Theology: A Symposium for the Future*, (New York: Crossroad, 1989), 20.

개혁이라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문화적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르네상스, 종교개혁은 흑사병에 유럽인들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종교 뿐 아니라 서구 사회 전체의 개혁을 가져온 문화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불명의 타인을 질병의 확산, 유발자로 지목하여 악용하는 희생양 찾기가 시작되었다. 국가 체제나 종교 체제 또는 군중은 곤경으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공동체 유지에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 찾기를 실행한다.<sup>12)</sup> 흑사병 스캔들은 중세 초기에 시작되었지만 11-13세기 십자군 전쟁 때까지도 유럽 전역에 만연했다. 흑사병은 1346-1353년 사이 팬데믹으로 절정에 달했고 중세 종교 체제 속에서 종종 발생되었던 희생양화 작업도 체제위기와 함께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이 기간에 흑사병으로 적게는 30% 많게는 60%의 유럽 인구가 사망했다고 추정한다. 무엇보다 14세기 대흑사병 때 교회와 국가는 많은 한계를 보여 주면서 희생양화를 강화시킨다. 프랑스의 필리프 6세는 대학 의사들에게 발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찾으라고 재촉하였다. 당시 서방교회는 과학적 수준이 동방교회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었다. 예컨대 흑사병을 쥐가 옮긴다는 사실은 19세기 이후에야 발견하였기에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적절한 답변을 찾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당시 의사들은 흑사병이 냄새로 전염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약초나 향료를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처방법을 제시했다. 또 이물질 제거를 위해 몸의 피를 뽑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생각도 했다. 하지만 환자의 살을 찌어 피를 내는 치료법은 병을 더욱 확산시킬 뿐이었다.<sup>13)</sup> 팬데믹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만 갔다.

12) 최성용, 강순규, 최병학, “팬데믹과 개혁교회의 패러다임적 대응,” 기독교학문연구회 편, 『신앙과 학문』 26-2 (2021), 85-111.

13) 위의 논문.

당시 사회의 패러다임이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학자들은 흑사병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합리성을 찾지 못했고, 시대는 위험 사회적 상황으로 함몰되어 갈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의학계 뿐 아니라 정치계도 마찬가지였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신앙적 합리성도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장례미사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 면죄부를 발행해 주었고, 해부를 통해 흑사병의 원인을 밝히려도 노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제들의 성직록이 남아돌자 살아남은 사제들이 이것을 챙기기 시작했고, 면죄부와 함께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많은 수입은 축재에 대한 욕망에 불을 지폈고 사제들의 타락은 교황의 면죄부 남발까지 확산되었다. 왜곡된 방역과 예배로 흑사병은 막을 수 없었고 흑사병이 다시 창궐하자, 교황은 더욱 규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sup>14)</sup>. 흑사병 퇴치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재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환자 주변에 성수를 뿌려 질병을 막으려하던 성직자도 죽는 경우가 빈번해져 두려움에 환자 곁에 가지 않으려는 성직자들도 늘어만 갔다, 평신도들이 여러 교회의 역할을 대행하기도 하였다<sup>15)</sup>. 미셸 푸코(M. Foucault)가 말하는 ‘사목권력’은 왜곡되었고 작동되지 못하였다. 개인적·사회적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당하던 평신도들을 보살피야 했던 사목권력의 무능은 결국 평신도의 각성과 함께 평신도 운동을 촉발하였다.

그 결과 교회의 권위와 리더십은 십자군 원정 때보다 더욱 하락하고 교회의 공공성과 공동선의 추구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교회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처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위기 상황

14) Hans Hubschmid, *Der Aufschwung Europas nach dem Jahr 1000* (Zürich: Füssli, P, 1997) 135.

15) John Kelly, *The Great Mortality. An Intimate History of the Black Death, the Most Devastating Plague of All Time* (New York: Harper Perennial, 2005), 146-149.

하에서 책임 회피 도모를 위한 마녀사냥과 희생양 만들기는 점점 늘어만 갔다. '희생양 매커니즘'은 정의에 반하면서 위기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왜곡된 차원에서 회복탄력성을 제공한다. 문제는 고위험의 체제 위기 속에서 국가와 함께 함께 교회도 이 희생양 찾기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전염병은 다윗의 권력(삼하 24장)처럼 언제나 권력의 무력함을 폭로해 왔다.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의 통치와 생명정치 속에 놓기 시작한 근대국가에서도 팬데믹의 창궐은 체제 위기의 징표이자 희생양을 부추기는 징표라고 할 수 있고 중세에는 더욱 그러했다.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리더십이 약화된 교황 제도는 이 후에도 교황직의 분열과 성직자들의 윤리적 문제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교회의 쇠신과 교회 구조의 개혁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요구되어져야 했다. 하지만 기독교중심 중세교회는 희생양을 만들어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희생양으로 다른 인종을 선택한다. 유대인들이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내며 천여 개의 유대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이때에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적 인문주의를 통해 기존 교회의 신학적 합리성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결정적 패러다임 변화, 즉, 개신교로의 개종은 하지 않았다<sup>16)</sup>. 그러나 교회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에라스무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sup>17)</sup>. 에라스무스는 견고한 성과 같은 가톨릭 체제와 기존 가톨릭 정상과학 패러다임을 루터가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개인의 영적체험 안에서 개혁적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을 단행한다.<sup>18)</sup>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

16) H. Küng, and D. Tracy (Ed.), *Paradigm Change in Theology: A Symposium for the Future* (New York: Crossroad, 1989) 27.

17) 위의 책, 7-8.

다임이 종교개혁 패러다임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복음에 기초한 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혁명적 단절이 아니라 연속과 불연속의 과정 안에서 개혁적으로 작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복음이 교회의 패러다임 변화의 불연속적 연속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sup>19)</sup>. 에라스무스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러 종교개혁가들과 인문주의자들이 역사적, 문법적 해석학, 또한 오직 성경(sola scriptura)만이라는 해석학적 원리를 강조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이제 다시 루터의 시대로 돌아가 보자.

### III.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루터의 조언<sup>20)</sup>

작은 대학 도시. 비텐베르크에 첫 환자가 발생한 건 1527년 8월 2일<sup>21)</sup>이었다. 종교개혁의 후원자였던 작센의 요한 선제후는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8월 10일 대학을 근방의 예나 지역으로 옮기고 루터와 함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도 피신하도록 명령했다.<sup>22)</sup> 그러나 일주일 이 채 지나지 않아 비텐베르크 사망자 숫자는 18명을 기록했다. 시장의 아내가 루터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루터의 집에 머물고 있던 친구의 아내

18) 위의 책, 71.

19) Sallie McFague, *Life Abundant: Rethinking Theology and Economy for a Planet in Peril* (Minneapolis: Fortress, 2001), 60-63.

20)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글은 1527년 루터가 브레슬라우(Breslau)에 있는 요하네스 헤센(John Hessen)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다. 이 편지에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해야 할까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다. WA 23, 338 ff.; LW43, 113 ff.

21) 전염병은 분명히 7월에 마을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특히 어부들의 지역에서 발생했다 (WA, Br 4, 232; 8월 19일). 그 다음 그것은 마을 중심으로 왔다. 루터는 11월 4일에도 비슷한 진술을 하였다. WA, Br 4, 276. 편집부, 『루터선집 49권』 (서울: 컨콜디아사, 2017), 284. 재인용.

22) 1521년 초겨울 비텐베르크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래서 11월 20일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대학에 대피명령을 내렸다. LW 43: 115.

는 임신한 상태에서 태아와 함께 죽어갔다. 루터의 아내도 임신 중이었고 큰 아들 요하네스는 병중이었다. 거의 하루 한 명이 죽어가는 상황<sup>23)</sup>에서 멜란히톤을 비롯한 동지들도 하나 둘 도시를 떠나갔다. 그들은 루터에게 함께 도망치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겨진 루터는 부겐하겐<sup>24)</sup>과 함께 계속 강의를 하는 한 편, 늘어나는 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자신의 집을 임시 병원으로 운영하였다. 그는 비텐베르크의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곁을 지켰다.<sup>25)</sup>

사실 이러한 루터의 행동<sup>26)</sup>은 종교개혁자라는 측면에서 담대해 보이기 는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무모함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 본인이 영웅 의식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루터는 다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많으면 [하루에] 두세 명을 역병이 데려갑니다. 아직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오늘 (우리 건너편에 사는 이웃인) 장인(craftsman)의 아들이 장사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건강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도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역병이 들어 닥쳐 아주 잔인하고 갑작스럽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세대를 말이지요. 바르톨로메오(Bartholomew) 석사와 함께 당신은 제게 피하라고 하십니

23) 동물들에게도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다고 한다. 편집부, 『루터선집 49권』, 279.

24) 부겐하겐(Johanes Bugenhagen)은 루터와 함께 한 종교개혁의 동반자였다. 멜란히톤이 학자로서 루터와 함께 했다면 부겐하겐은 교회 현장을 살핀 실천가였다. 그는 개신교 최초로 청빙에 의해 세워진 목회자였다. 편집부, 『루터선집 48권』 (서울: 컨콜디아사, 2017), 461.

25) LW 43; 115.

26) 루터 집(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였다.)의 방들에 대해서 ARG 17 (1920), 301 ff 참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이 아파서 그의 가정이 병원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 가족들은 유행성 전염병이 돌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집에 데리고 있었다. WA, Br 4, 275. 덧붙여, 부겐하겐의 가족들은 그의 집에서 죽은 게오르크 뤼리의 아내의 극적인 죽음에 의해 크게 충격을 받은 후에 11월 2일 이후에 이사하였다. WA, Br 4, 276. 편집부, 『루터선집 48권』, 269. 재인용.

다. 제가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마르틴 수사가 넘어졌다고 세상이 산산이 조각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역병이 계속 심해지면 저는 수사들을 전 지역으로 흩어 보낼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기에 제 장소는 이곳입니다. 대리구 주임 사제님이 제게 떠나라고 두 번째로 명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떠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제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단지 사도 바울에 대해 강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께서 저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sup>27)</sup>

그러므로 루터가 전염병이 돌고 있는 비텐베르크에 남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물론 치료할 것이나 죽을 것이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루터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과 답하는 루터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루터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도망(run away)가도 되는 건가? 항복(submission)해야 하는 것일까”<sup>28)</sup>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도망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황을 더 걱정하였다.

당시 독일에는 흑사병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신실한 신자라면 믿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루터 또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결정에 대해서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제사장 우리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등 죽음을 피해 도망해야 했던 성서 속 인물들의 사례를 들면서 전염병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27) 위의 책, 47-48.

28) LW 43; 119.

앤더슨 교수는 우리가 루터의 이 편지를 읽기 전에 다음의 내용이 전제되어야 루터의 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터는 무조건 도망치는 것과 남아서 재앙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양자택일로 여겨졌던 논쟁을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영역이며, 재앙 앞에서 인간의 도덕성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안에서 이해된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sup>29)</sup>

도망치느냐, 혹은 남느냐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자세의 차이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루터의 글 첫 부분에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의 사례들이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루터는 기독교인들 중 대부분은 약한 존재들이고 일부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베드로의 경우, 믿음이 강했을 때는 물 위를 걷기도 했지만,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물에 빠져 죽게 된 적도 있음을 기억하라고 한다.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과 여행을 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고려하여 여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루터는 강함과 약함의 비교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라는 총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이해될 수도 비난 받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루터는 도망을 가느냐, 마느냐 보다 중요한 문제는 도망을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루터가 도망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지목한 첫 번째 부류는 ‘목회자와 예배봉사자’였다.<sup>30)</sup> 목회자는

29) Per Anderson, “Reading Luther on Plague in a Technological Age,” *Word & World* 13, no. 3 (1993), 278. 앤더슨은 루터의 편지를 당시 사회 심각한 이슈였던 AIDS의 문제와 연결하여 편지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향후 기술 사회 안에서 벌어지게 될 문제들에 루터의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성, “루터의 시선으로 본 코로나-19”, 8. 재인용.

30) LW 43; 120. 여기서 예배 봉사자란, 루터파 교회에서 설교자와 함께 예배와 성찬을 분배하는 교회의 정식 직무자를 말한다.

인간 사회에서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때 말씀과 성례전을 베풀고 신앙 안에서 그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지역에 성직자가 많은 경우에는 일부에게 떠날 것을 권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떠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부류는 시장이나 판사와 같은 공직자들이었다. 그들의 직위는 세상의 지사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고 한다. 맡겨진 공동체를 버려서 정부와 관리 없이 살인, 화재, 절도 같은 범죄가 벌어지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만일 우리 사회에 고아가 생겼다면 아이의 보호자나 부모 친구가 나타나서 아이를 돌볼 수 있을 때 까지는 아이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되고 아픈 사람이 생겼다면 간병인을 구해 놓고 떠나라고 루터는 주장한다. 루터의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보살펴야 할 의무를 가진 다는 것이다.

1516년, 그러니까 이 글에서 다루는 루터의 1527년의 편지가 쓰이기 훨씬 전에도 비텐베르크에는 전염병이 창궐했었다. 이때 수도원에 있으면서 지방 주교 대리로 활동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던 루터는 요하네스 랑(John Lang)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많으면 [하루에] 두세 명을 역병이 데려갑니다. 아직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오늘 (우리 건너편에 사는 이웃인) 장인(craftsman)의 아들이 장사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건강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도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뭐라 할 수 있었습니까? 역병이 들어닥쳐 아주 잔인하고 갑작스럽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세대를 말이지요. 바르톨로메오(Bartholomew) 석사와 함께 당신은 제게 피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마르틴 수사가 넘어졌다고 세상이 산산이

조각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역병이 계속 심해지면 저는 수사들을 전 지역으로 흩어 보낼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기에 제 장소는 이곳입니다. 대리구 주임 사제님이 제게 떠나라고 두 번째로 명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떠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제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단지 사도 바울에 대해 강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께서 저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sup>31)</sup>

루터가 ‘남거나 혹은 떠나거나’의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해답은 이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 당신은 남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 강한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믿음이 연약하여 공포에 사로잡힌다면 자신의 의무를 버리지 않고 수습하는 선에서 떠나게 하라’<sup>32)</sup>는 것이다.

나아가서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권고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가 아니라 ‘사랑’ 즉,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장한다. 루터는 떠나는 사람들과 머무는 사람들 모두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sup>33)</sup> 물론 이러한 루터의 주장이 떠나는 것도 남는 것도 잘못된 것은 없다는 답일 수 있다. 루터의 이런 의견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루터가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도 비판한다. 그러나 팬데믹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 루터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망가느냐,

31) 편집부, 『루터선집 48권』, 47-48.

32) LW 43; 122.

33) 이러한 위험과 재난의 여러 달 동안에 그의 소논문과 더불어 루터의 행동은 목회자가 그의 양들을 향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의 형제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에 대한 강렬한 루터의 이해에 증거를 주었다. 일련의 학자들은 전염병이 돌던 이러한 주간 동안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인 것에 대한 10번째 기념일이 돌아왔으며 루터는 그의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곡하였다고 주장한다. Enders, Briefwechsel 6, 112, n. 9 참조. Luther19 (1937), 4 ff.; PE 6, 306; LW 53, 283 ff. 참조. 편집부, 『루터선집 48권』, 270. 참조.

남느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팬데믹 시대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아니다. 루터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이곳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남겠습니다. 저는 미친한 생명입니다. 이 전염병 속에서 천재지변 같은 위험에 처한 상황처럼 저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중 략 -----

“하나님 저는 약하고 공포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으로부터 도망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전염병과 다른 모든 위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 땅에 재앙과 위험이 넘쳐 저 혼자 도망칠 수 없습니다.”<sup>34)</sup>

그렇다면 루터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루터 신학의 핵심이었던 십자가 신학에 기초한 것이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이신칭의 교리와 더불어 루터 신학에 핵심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십자가 신학은 이신칭의 교리와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루터 신학 전체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현대 교회로 하여금 루터와의 연결고리를 갖게 해주는 신학적 준거로서 지속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루터는 스콜라주의 신학이 제시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절망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루터는 바울 서신서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며”(롬 1:17),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34) LW 43: 125.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전 1:18)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절들은 루터로 하여금 성경해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해주었고, 회심을 경험하게 하였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이러한 경험에서부터 출발되었다. 십자가 신학은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것은 개신교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

#### IV.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동행 의식

루터의 신학 전체는 십자가의 신학(theologia crucis)이란 명칭으로 총괄될 수 있다. 우리는 1518년에 루터가 중세 스콜라 신학에 대해 반박하여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 하이델베르크 논제(Disputatio Heidelbergae habitae) 속에서 이 중요한 사상을 찾을 수 있다.<sup>35)</sup> 이 논박문 속에서 루터는 자신의 참된 신학의 본질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천명하였다.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만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따라서 오직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만 찾고 인식될 수 있다. 하나님은 루터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함으로써 인간의 교만과 영광과 선행을 자랑함이 분쇄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그의 뒷면(등: Posteriora)을 수난(고난당하심)과 십자가를 통하여 통찰하고 인지하는 사람을 신학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성립된다는 것이다.<sup>36)</sup> 이 글에서 루터는 중세의 스콜라

35) 지원용 편, 『루터 선집 제5권: 교회의 개혁자 I』 (서울: 키클디아사, 1984), 245. 하이델베르크 논제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라인하르트 슈바르츠, 정병식 역, 『마틴 루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113. 이하 참조바람. *Crux sola est nostra theologia*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36) Paul Althaus,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구영철 역, 『마틴 루터의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51면. 또한 십자가의 신학에 관해서 Bernhard Lohse, *Luthers Theologie in ihrer historischen Entwicklung und in ihrem systematischen*, 정병식 역,

신학이 창조된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질을 직접적으로 통찰하려는 방식을 영광의 신학(theologia gloriae)이라고 비판한다.<sup>37)</sup>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를 통해 서만 계시된다는 것이다. 루터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숨어계시며(Deus absconditus), 그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시되는 역설적인 하나님 인식과 참된 신학이 곧 십자가의 신학임<sup>38)</sup>을 주장하였다.

루터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두 의미를 가진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이다.<sup>39)</sup>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셨던 곳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난 가운데서 자신을 역설적으로 계시하시므로, 세상의 척도, 영광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함 속에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역시 십자가의 신학에 의하면 고난과 수난으로 부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와 같이 고난당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참으로 인식되는 바 그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 상응되는(Korrelation)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sup>40)</sup> 루터는 이러한 속고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으

『마틴 루터의 신학: 역사적, 조직신학적 연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61. 이하 참조.

37) 중세 카톨릭 신학의 성격으로 루터가 비판, 규정하는 영광의 신학은 자연신학 즉 사변적 형이상학과 함께 도덕적인 인간의 행위로써 자기 교양으로 하나님에 이르려는 교만과 인간의 뽀냄(Inflation)에 의한 신학이라고 알트하우스는 설명한다. Paul Althaus, 『마르틴 루터의 신학』, 53.

38) Deus absconditus와 Deus revelatus(계시된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Alister E. McGrath,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Martin Luther's Theological Breakthrough* (Grand Rapids: Baker Books, 1985), 165 이하 참고.

39) Paul Althaus, 『마르틴 루터의 신학』, 54. 십자가의 신학자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그 자체로써 사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발터 폰 뢰베니히는 해명한다. Walter von Loewenich,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trans. Herbert J.A. Bouman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6), 19. 이 책은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저술이다.

40) 위의 책, 55.

로 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약하심, 비참함, 굴욕 등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인 자기의식의 멸망과 파괴로 나아가게 됨을 말하게 된다.<sup>41)</sup>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는 자기 죽음의, 전 실존에 걸친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실재적인 만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겸비하고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은 고난들을 보배로 여기며 가장 귀한 것으로 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루터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루터는 신앙의 본질이 언제나 세상이 보는, 또한 자신의 이성과 세상적인 체험이 보는 그 실재성과의 투쟁 속에 있다고 확신한다.<sup>42)</sup> 이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시련(Anfechtung)을 겪게 된다.<sup>43)</sup>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시련과 곤혹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곤경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신앙은 그러한 고난의 길에서 경험적인 실재와는 끊임없이 모순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세상 속을 뚫고 가는 돌파적인 성격(Durchbruchscharakter)을 보여준다.<sup>44)</sup> 결국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와의 연계성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다.

41) 위의 책, 55.

42) 위의 책, 61.

43) Anfechtung은 라틴어로 tentatio인데, 영어로는 affliction, anxiety, temptation, despair 등을 다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의 고뇌의 기도를 거쳐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신 최후의 시험(유혹)처럼, 신앙은 철저한 자기고뇌, 절망, 버림받음, 굴욕받음 등 실존적인 삶의 궁극적인 계기들 속에서 드러난다. 이에 관한 충분한 해설을 위해서 Lennart Pinomaa, “The Problem of Affliction,” in: *Faith Victorious: An Introduction to Luther's Theology*, trans. Walter J. Kukkonen (Philadelphia: Fortress, 1959), 89. 이하 참고.

44) Paul Althaus, 『마르틴 루터의 신학』, 62.

발터 폰 뢰베니히는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이 결코 사변적, 이론적 신학이 아님을 주목한다. 그의 신학을 그렇게 보면 전적으로 오해에 처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루터의 신학은 전체적으로 체험적이며, 실천적인 동시에 실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망자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결단과 투쟁으로 인도하는 실존적인 성격의 생명적인 신학 즉 “삶의 신학”<sup>45)</sup>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참된 신학은 루터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고난 아래에 처한 신자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지 아카데미나 학문적인 사색에서 창출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나아가서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서로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고난의 체험 속에서만 참된 실재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은 투쟁과 극렬한 진지함, 혹은 심각함 속에서 그의 삶을 살게<sup>46)</sup>된다.

첫째로, 뢰베니히는 루터가 본 십자가 아래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감추어짐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겨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삶이며,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고 따라서 경험적인 삶과 전적으로 동일시될 수 없다. 루터는 발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신자의 삶이 순수하며 어두운 신앙에 의한 것이므로, 감각과 이성의 경험적 감지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다고 본다.<sup>47)</sup> 감각과 인식은 위에서 보았듯이 참 그리스도인의 실재와 대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역시 세상의 경험적 체험에는 드러나지 않는 궁극적인 실재이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 육적인, 혼적인 삶이

45) Loewenich,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112. 그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삶과 죽음 사이의 투쟁에 입각한 체험적 신학이라고도 볼 수 있다.

46) 위의 책, 113.

47) 위의 책, 115.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관점에 의해 사는 이 영적인 삶은 세상에 대해 죽고 감추어진 십자가의 삶이며 세상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다.<sup>48)</sup> 영적인 사람인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경험적인 육적인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역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루터는 주장한다.<sup>49)</sup> 새로운 인간은 옛 인간 아래 살게 되며, 속사람이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새로운 거룩함의 삶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인 삶은 규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긴장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 사람은 드러나며 옛 삶은 가라앉는 영육 간의 갈등과 투쟁이 언젠가 마쳐질 종말론적 성격이 항상 존재한다. 루터 신학과 윤리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항상 드러나듯이, 역설과 대립과 긴장 속에 있지만 현재라는 인생의 그림자 아래서의 삶에서 신자는 순례자로서, 나그네와 이방인, 혹은 유배자로서 살아가는 임시적인 실존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sup>50)</sup>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 안에서의 제자도로 설명될 수 있다.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제자의 길인 것이다. 그 영광은 낮아짐과 겸비 속에서, 그 고귀함은 수치와 굴욕 속에서, 그 기쁨은 슬픔 속에서, 그 희망은 절망 속에서 역설적으로 발견된다. 루터는 자신의 철저한 수도사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수도금욕주의와 가장 숭고한 신비주의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도가 발견될 수 있지만, 실로 그 진지함과 심각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능가, 초월되어야 한다고 본다.<sup>51)</sup> 그에게 금욕주의는 옛 사람

48) 위의 책, 116.

49) 위의 책, 117. 루터의 유명한 명제인 “동시에 의인이며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50) 위의 책, 117.

51) 위의 책, 118.

이 죽으며 새로운 사람과 투쟁하는 고난 속에 있으며, 매일 자기존중을 억누르고 금식과 기도와 경성함 등으로 자신을 극도로 훈련하는 삶의 수고로운 극기이다.<sup>52)</sup> 그러나 그와 같은 육체적 금욕주의는 카톨릭교회처럼 결코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며,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기 부인의 참된 제자의 길이다. 루터는 특히 이러한 고난의 금욕훈련이 신자에게 내적 정화를 가져오는 것은 단지 외적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sup>53)</sup> 나아가서 그것은 자신의 문제에 집중되지 않고 결국 동료, 이웃의 선을 위한 섬김과 선행으로 방향 지워져야 한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든 것에서 그 스승인 예수를 따르고 닮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하는 모든 수치와 굴욕, 버림받음과 무력과 절망 등을 제자직의 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루터는 강조한다.<sup>54)</sup> 그와 같은 낮아짐과 겸비는 고난으로 인도되며, 신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매일 지고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낮선 일(*opus alienum*)을 통해 하나님의 적절한 일(*opus proprium*)이 역설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다.<sup>55)</sup> 이를 통해 우리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신앙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것은 인간을 정화시키는 성소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sup>56)</sup>

52) Paul Althaus, *The Ethics of Martin Luther*, trans. Robert C. Shultz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21-22.

53) 위의 책, 23.

54) Loewenich,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118

55) 위의 책, 157. 참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수난)에서, 약함과 박해와 심판받으심에서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덕이 계시되며, 그로 인해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56) 위의 책, 119.

이와 같이 루터에게 있어서 고난 속에서의 제자도는 곧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제자의 십자가는 일치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신자는 마음의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것이다.<sup>57)</sup> 그것은 희망에 거스르는 희망을 믿는 것이며, 그러한 십자가의 지혜는 감추어진 깊은 신비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는데, 이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내면적으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고 파쇄, 멸절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형성되는 것이다.<sup>58)</sup>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부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참된 신자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과 적대, 갈등과 투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도살당하는 양처럼,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투쟁에 깊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본다.<sup>59)</sup>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고 일치하게 된다고 루터는 주장한다.<sup>60)</sup> 이것이 십자가 아래에서의 삶의 클라이맥스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이다. 이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모든 교만과 자랑,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동행(同行)의식인 것이다. 하

---

57) 위의 책, 120.

58) 위의 책, 121.

59) 위의 책, 123.

60) 위의 책, 123.

나눔과의 동행, 이웃과의 동행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것이다.

루터는 1527년에 쓴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기독교인 의사들은 자신이 속한 병원을 버릴 수 없고, 기독교인 정치가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고, 목회자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전염병은 우리의 의무를 해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그 위에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동행의식이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을 피해 마스크로 둘러 싸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가지고 있는 마스크와 소독제 그리고 생필품 등을 공유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을 보호한다면 실제로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 사망자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동행이 자칫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글에서 제5계명에 대해 기술하면서 우리의 태만이거나 무모함이 다른 이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루터는 환자 격리 조치에 따라 집을 소독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독려한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봉사의 윤리, 이웃에 대한 동행 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고통 받는 이들을 돌보는 일의 시작은 무엇보다 건강한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행의식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질병을 퍼뜨리는 태만이 곧 살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였고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위생적인 장소인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동행의식에 의해 이웃을 돌보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희생은, 우리의 편리함을 포기하며 적극적 위생

조치와 사회적 거리 유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남에 대한 이 같은 겸허한 보살핌은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힘이다.

## V.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우리는 500여년 전 루터의 편지를 통하여 팬데믹 시대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금 세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가 직면해 온 실존적인 공포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갑자기 휩싸이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팬데믹의 시대라고 부른다. 우리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의 전면적인 공격을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전염병의 경험이 현대사회 인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기에 충격은 더 커졌다. 심리적·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500년 전 이미 흑사병으로 팬데믹의 시대를 경험하고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조언을 썼던 루터의 글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루터는 재앙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동행의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가르치셨던 주님의 절대 명령이었다. 전염병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기독교 윤리는 나의 자신의 생명보다 이웃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루터의 이런 사상은 그의 신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신학에 근거한 것이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이신칭의 교리와 더불어 루터 신학에 핵심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루터는 스콜라주의

신학이 제시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절망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루터는 바울 서신서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며”(롬 1:17),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전 1:18)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절들은 루터로 하여금 성경해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해 주었고, 회심을 경험하게 하였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이러한 경험에서부터 출발되었다. 십자가 신학은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것은 개신교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 루터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인식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길임을 천명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능력, 창조를 통해서 보다는 고통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식된다. 따라서 십자가는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루터는 인간의 자기 의를 부인한다. 하나님 인식과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sup>61)</sup> 에밀 브루너는 기독교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으로 정립한 루터를 칭찬하면서 십자가야말로 신 인식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인식의 열쇠라고 한다. “하나님 인식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 사이에 갈등을 초래한다”<sup>62)</sup> 이러한 하나님 인식은 마침내 인간의 파괴를 파괴하고, 소외된 자를 소외시킨다. 이리하여 그는 비인간을 인간성으로, 자기의 업적을 통한 자기 확증으로부터 하나님의 업적을 통한 신앙적 인식의 길로 인도한다. 이러한 인도의 지팡이요 나침반이 십자가 신학이다.

61) Las Lindberg, “Koyama, the Cross, and Sweden in Dialogue,” Dale Irvin, Akinade(eds), *The Agitated Mind of God: The Theology Of Kosuke Koyama* (New York: Orbis Books, 1996), 93.

62) John R. Scott, *The Cross of Christ*, 황영철, 정옥배 역, 『십자가의 도』 (서울: IVF, 1988), 55.

십자가 신학이 무너뜨리려는 우상은 인식과 업적을 통하여 자신을 우상화하며 신격화하는 인간의 비인간적인 관심이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 인식은 그의 인간성을 내버린 인간을 파괴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인식은 인간의 우상들과 그의 참되지 못한 신성을 파괴하고 인간적인 교만으로부터 참된 인간 존재로 회복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인식은 탐욕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자신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homo incurvatus in se)이 되어 자기를 병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린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그것은 오직 신앙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십자가 신학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동행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대 교회의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성과 공동선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종교가 인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다원적 공론의 장을 구축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보하는 것이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서 수립해야 할 진정한 '뉴노멀' 형성의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내부적 논의와 갈등에 집중하며 사회적 공론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며 한국 사회의 공공성 의제와 연관된 공론장을 확대하고 전 세계적인 공공신학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교회가 교회적 '공동의 선'과 사회적 '공동의 선'을 일치시켜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때이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트라우마 사회 속에서 교회는 '영광의 신학', '번영의 신학'이라는 패러다임보다는 십자가와 고난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사회에 대한 깊은 보살핌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회복탄력성과 외상 후 성숙을 주는 공동체, 트라우마 사회

에서 오히려 힘써 예수를 따르는 교회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 언택트 사회에서 초대교회의 패러다임을 회복하여 예배와 교제, 선교 사역에서의 적극적인 회복탄력성을 모색하는 “동행의식”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지원용 편. 『루터 선집 제5권: 교회의 개혁자 I』. 서울: 컨콜디아사, 1984.
- 편집부. 『루터선집 48권』. 서울: 컨콜디아사, 2017.
- \_\_\_\_\_. 『루터선집 49권』. 서울: 컨콜디아사, 2017.
- Althaus, Paul.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구영철 역, 『마르틴 루터의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 Lohse, Bernhard. *Luthers Theologie in ihrer historischen Entwicklung und in ihrem systematischen*. 정병식 역. 『마틴 루터의 신학: 역사적, 조직신학적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 Stott, John R. W.. *The Cross of Christ*. 황영철, 정옥배 역. 『십자가의 도』. 서울: IVF, 1988.
- Kittelson, James M.. *Luther: The Reformer*. 김승철 역. 『개혁자 말틴루터』. 서울: 컨콜디아사, 1995.
- Althaus, Paul. *The Ethics of Martin Luther*. trans. Robert C. Shultz.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 Hubschmid, H.. *Der Aufschwung Europas nach dem Jahr 1000*. Zürich: Füssli, 1997.
- Kelly, John. *The Great Mortality. An Intimate History of the Black Death the Most Devastating Plague of All Time*. Harper Collins, 2005.
- Luther's Works Volume 43.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edit. Jaroslav Pelikan, Helmut T. Lehma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5~1972, 1968.
- Loewenich, Walter von.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trans. Herbert J. A. Bouman, Minneapolis: Augusburg Publishing House, 1976.
- Lindberg, Las. "Koyama, the Cross, and Sweden in Dialogue". Dale Irvin, Akinade (eds), *The Agitated Mind of God: The Theology Of Kosuke Koyama*. New York: Orbis Books, 1996.
- McFague, Sallie, *Life Abundant: Rethinking Theology and Economy for a*

*Planet in Peril*, Minneapolis: Fortress, 2001.

McGrath, Alister E.,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Martin Luther's Theological Breakthrough*, Grand Rapids: Baker Books, 1985.

Pinomaa, Lennart, “*The Problem of Affliction*,” in *Faith Victorious: An Introduction to Luther's Theology*. trans. Walter J. Kukkonen, Philadelphia: Fortress, 1959.

• 논문

유현준.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 『포스트 코로나,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포스트코로나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움. KTV국민방송. 2020년 06월.

이지성. “루터의 시선으로 본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과 새로운 교회-NCCK 애큐메니칼 선교포럼 자료집』. 2021년 04월 29일, 5-14.

최성용 · 강순규 · 최병학. “팬데믹과 개혁교회의 패러다임적 대응.” 『신앙과 학문』 26 (2021), 85-111.

한동욱. “뉴 노멀 시대의 건축.” 『건축』 64-8 (2020), 20-21.

Anderson, Per. “Reading Luther on plague in a technological Age.” *Word & World* 13. no.3 (1993), 269-280.

• 기타

<http://ncov.mohw.go.kr/>. 중앙안전대책본부. 2022년 12월 10일 접속.

<https://url.kr/s4abk7>. “What Martin Luther Teaches Us About Coronavirus, Is it faithful to flee an epidemic?.” EMMY YANG (2020.01.30.) 2022년 12월 10일 접속.

논문투고일: 2022년 11월 13일

심사개시일: 202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2일

---

 • 국 문 초 록 •
 

---

2020년 이 후 전 세계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도전을 받고 있다. 500년 전 루터는 흑사병으로 인한 팬데믹 시대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루터가 흑사병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한 ‘동행의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대한 선택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에 대한 자세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소명에 대한 자세라고 주장한다.

루터의 이런 자세는 그의 십자가 신학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의 십자가 신학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과 수난에 부름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시련과 곤혹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곤경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동행의식’에 의해 이웃을 돌보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희생은, 우리의 편리함을 포기하며 적극적 위생 조치와 사회적 거리 유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이 같은 겸허한 보살핌은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힘이다. 팬데믹 이 후의 교회는 ‘동행의식’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주제어:** 팬데믹, 전염병, 루터, 동행의식, 기독교

---